

광주시, 청소년자율공간 '다같이 즐겁당' 개소

크리스마스를 앞둔 24일 광주 서구에 청소년자율공간 '다같이 즐겁당'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한 북구, 광산구, 남구에 이어 서구에 네 번째로 청소년자율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이날 서구 풍암동에 청소년자율공간 '다같이 즐겁당'을 마련,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곳은 서구의 첫 청소년자율공간으로, 지난해 문을 연 북구 입동, 광산구 비아동과 올해 6월 개소한 남구 진월동에 이은 네 번째 청소년공간이다.

이 공간은 청소년이 무료로 쉬고, 공부하고, 게임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풍암동 한 아파트 관리동 3층 216㎡ 면적에 ▲청소년 전용 라운지 ▲북카페 ▲노래방 ▲포토부스 ▲가상현실(VR)존 ▲게임존 등을 갖춰 다양한 체험과 여가활동을 제공한다. 청소년자율공간은 청소년이 주체가

서구 풍암동 216㎡ 규모... 북카페·VR존·노래방·라운지 등 갖춰 북구·광산구·남구 이어 네번째... 내년 동구 계림동 등 3곳 추가 공간 기획·운영 등 청소년 주도적 참여로 자율·창의성 향상 기대



데 공간 구성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해당 공간이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청소년 주도 정책 실현의 플랫폼이자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역 내 청소년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체험기회와 휴식 등 다양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자율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 동구 계림동, 북구 동림동, 광산구 흑석동에 3개소가 추가 개소·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역 간 청소년 활동 격차를 줄이고,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강 시장은 개소식이 끝난 뒤 청소년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자율공간 개소를 축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름처럼 다 같이 즐거운 서구 청소년 자율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쉬고,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강진군, 근대 양곡창고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백금포 문화공간 1933' 개관 미디어아트 기반 복합문화공간 조성

강진군은 지난 18일 군동면 영포마을에 조성한 '백금포 문화공간 1933' 개관식을 열고,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을 공식 개관한다고 24일 밝혔다.

백금포 문화공간 1933은 1930년대에 건립된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설로,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역사적 건축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대적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2022년 12월 미디어아트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2025년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이번에 정식 개관했다.

'백금포 문화공간 1933'에는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과 휴게·카페 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과거 지역 물류의 중심지였던 양곡창고에 빛과 영상, 예술 콘텐츠를 담은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진군은 향후 이 공간을 지역 문화에 솔인하고 연계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소규모 문화행사 및 관광 콘텐츠 운영 거점으로 활용해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백금포 문화공간 1933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문화로 재해석한 공간"이라며 "근대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2026년부터 전담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내년 5월, 국중박 보물이 영암도기박물관을 찾아온다

영암도기박물관, 2026년 국보순회전 최종 개최지 선정

내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의 보물이 영암군민을 찾아온다.

영암도기박물관이 18일 국립중앙박물관의 '2026년 국보순회전'의 최종 개최지로 선정된 것.

국보순회전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을 지역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 전사로, 영암도기박물관에서는 내년 전국 세 번째 전시가 5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시에서는 '백제문양전'을 주제로 세련된 문양과 조형미를 담은 문화유산이 소개된다.

대표 전시품은 '산수무늬 벽돌' '봉황무늬 벽돌'로 문양이 들어 있는 것들이다.

두 문양 벽돌은 백제인의 뛰어난 조형 감각과 자연을 바라보는 미의식이 깃어낸 대표 유물이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고대 백제 문화의 예술성 역사성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영암군민이 놓치지 않기 바라고 있다.

아울러 국보순회전을 계기로 도기박물관 등 지역 문화

인프라를 알리고, 지역민에게 문화유산 향유 기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국보순회전 선정 때 영암도기박물관은 제외됐지만, 이후 전담 학예 인력 확보, 전시 운영 세부계획 수립, 국립 기관 협업 체계 강화 등으로 전시 준비 역량을 보완해 최종 전시 장소로 선정됐다는 후문이다.

2026 국보순회전 개최지는 총 6곳으로 상반기 ▲영암도기박물관, 백제문양전 ▲의령 의병박물관, 삼감청자 ▲진천 종박물관, 청화백자, 하반기 ▲고창세계유산고인돌박물관, 농경문정동기 ▲청도박물관, 금관 ▲성주 성산동고분군 전시관 백자가 예정돼 있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국보순회전은 지역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문화적 계기다.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 개발로 더 많은 관람객이 영암을 찾고, 지역 문화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봉황무늬전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공공누리제1유형)



산수무늬전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공공누리제1유형)

영암군,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 최우수상 수상

영암문화관광재단 운영으로 '문화거버넌스 구현' 분야 경쟁력 입증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2~23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에서 '문화거버넌스 구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콘체르토는 전국 85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160개 문화정책 사례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86개 사례가 발표됐다.

영암군은 '사람의 관계가 정책이 되고 모두의 삶이 존중받는 영암 문화 협치 시스템'으로 전국 군 단위 최우수, 전남 유일 수상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을 중심으로 한 영암군의 문화정책 추진 체계를 소개하며 행정 주도의 사업 집행을 넘어 주민과 예술

인, 지역단체를 연결하는 문화협치 플랫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환류하는 구조를 재단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튿날에는 영암문화관광재단이 문화정책 경진대회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재단은 주민 주도 문화 기획과 협치 기반 정책 실행 과정을 사례 중심으로 발표해 심사위원단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기본 체력이다. 최우수상 수상은 영암군이 사람과 관계를 중심에 둔 문화협치를 꾸준히 실천해 온 결과로, 앞으로도 군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보다 나은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

금이 있습니다

어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